지금 금방 죽는대도 생사를 다 놔버려라

☞ 21면에서 계속

고 이런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는 그 자리를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속에서 그거를 해야, 입력을 해서 이놈들을 시켜서 그냥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안에도 지수화풍이 돼 있어서 안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도 있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마음은 벽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으셨어도 천 리를 다녀오라고 해도 다녀올 수 있어요. 아니, 저 딴 혹성에 갔다 올래도 올 수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체를 다 보고 오라고 그래도 보고 올 수 있어요. 안에서도 레이저의 도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에서 치료를 하고 바깥에서 할 것은 바깥에서 치료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은 바로 그 지배인이 끌고 가게끔, 주인공이 끌고 가게끔 자꾸 입력을 넣어 주는 거죠. 제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 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둬 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 장가를 들여 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부모들 모르게 그냥 땅도 뒷구멍으로 다 팔아 가지곤 시골집 뭐, 몇 알갱이나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골집 하나 남겨 놓고 홀딱 가지곤 그냥 둘이 튀었어요. 허허허. 시부모 잔소리도 듣기 싫고 농사짓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꼬였겠죠. 그래 가지곤 둘이 훌쩍 딴 나라로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부모는 어떻게 됐느냐? 부모는 살면서 이때나 들어올까 저때나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그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집 하나만 남겼어도 부모는 생각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괘씸하다가 나중에는 보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몇 푼 금방 쓰면, 돈 다 없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나. 죽었나 살았나.' 이게 항상 걱정이죠. 돈 가져간 미움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것이 그저 잘 살고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안 찾아보더라도 그저 이것들이 속 썩지 말고 병들지 말고 그저 굶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하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집도 팔아 가지고선 그냥 절로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한 분은 공양주는 힘에 부쳐서 못 하지만 반찬 만드는 채공 노릇을 했고 하나는 부목, 나무는 해 오지 못하나 불 때고 나무 패고 이러는 부목 일을 맡아 가지고선 했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절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이웃에 다시 태어나서 그 절의 스님이 됐어요. 부부가 다 스님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끈한 비구승으로 어엿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비구로다 태어나서 이제 절에서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요, 아, 그 밑에 있는 사제 스님이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하는 얘기가요, 왜, 저 땅을 파 가지고 지붕 하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움막이라 그러죠? 길가에 있는 움막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푸대를 두르고 있고 하나는 옷은 입었는데 영감, 마누라가 다 늙어 가면서 아주 병이 심하고 그랬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참 불쌍하더라고 사형 스님한테 했어요. 그래 젊은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인제 남편은 사형이 되고 부인은 사제가 됐어요. 그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네가 갔다 오너라. 네가 나가서 그 바지저고리를 시주하라고 그래라." 허허허. 아, 글쎄, 바지저고리도 바지저고리 나름이지, 글쎄, 이가서 말은 들었을 테고, 허허, 그냥 헤진 거는 말도 못 하고, 더러운 것도 말도 못 하는데 아니, 그것을 글쎄, 시주하라고 그렇게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 스님은 불쌍한 마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자기 은사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그 천륜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네 자식들이니라, 과거에. 그것이 하나는 며느리고 하나는 네 자식이었던 사람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스님 앞에 푹 엎드러져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과거에도 빌었고 현실에도 빌고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 말씀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지은 건 자기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지 어디 그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아무리 줘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담기지가 않느니라. 그릇에 욕심과 삼독이 꽉 찼는데 어떻게 네가 주는 그 기도와 베푸는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형 스님은 인제 동생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시주를 하라니깐요, 이 옷 한 벌 있는 거를 마저 시주를 해 달라느냐고, '아이, 옷 한 벌 있는 거 달라는 스님 난 처음 보겠네.' 이러면서 야단법석이거든요. 하하하. 아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듣는데요? 아, 고거 시주하라면 "당장 가난한데 글쎄, 이런 걸 시주하래." 요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지요. 가난하니깐 어떤 때는 "야, 만 원도 좋고 오천 원도 좋아. 그러니까 너 성의 닿는 대로 해 오란 말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냥 호통을 치고 시주하라고 하니까 아, 그걸 두르고 말입니다, 하나가 밥 얻으러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고, 하나가 인제 거기 있을 때는 저, 뭡니까? 푸대! 푸대를 두르고 쓰고 있고 아, 이랬는데,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으라고 글쎄, 그 옷 한 벌을 있는 걸 마저 달라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지금 밥도 얻어먹으러 나가야 할 텐데 그 옷 없으면은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도 시주하라고 득달같이 그냥 그 거적 문을 들고는 야단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푸대를 반으로 잘라서 새끼로 매어 두르고는 그 옷을 갖다가 "여기 있소!" 그러고 바깥으로 내던지거든요.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못 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새끼오락지에다가 꿰어 가지고선 들고 갔어요. 가다 보니깐 그냥 바깥으로 이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요, 이도 그거 살생이라 그러니깐 죽일 수도 없고, 하하하, 그래서 들고는 갔어요. 가니까 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은사 스님이요, "얘야! 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늘이 무너진대도
'아이구, 네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무너진들 어떠랴.' 하고
나 이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 버리세요.

하니까 제자가 있다 하는 말이, 그러니깐 그 아버지였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웃도리는 뜯어서 솜 빼고 깨끗이 빨아서 양잿물 넣고 삶아서 아주 몇 번씩 헹궈서 말갛게 해서는 웃도리는 법당을 닦고, 아랫도리는 저 요사채를 닦아라." 이렇게 사제한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 가지고 그냥 옥사슬같이 빨아 가지고는 노냥 둘이서, 그 아버지는 위 법당을,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는 법당을 치우고 아랫도리는 어머니가 치우는 겁니다. 그것이 다 헤지도록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걸 닦으니까 그게 온전합니까? 요만큼 남거든. 요만큼 남아도 그냥 고걸 꼬옥 짜 가지고는 항상 고걸로만 닦아요. 닦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부실부실하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남거든. 그래 요것을 태워서 말이야, 자기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그냥 먹어 버렸어,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정성이란 말도 못 하는 거야. 응. 그러니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였을 때도 그랬고, 현재에 태어나서 비구로서 형제가 된, 사형 사제가 된 그 판국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럭하고 나서 그 두 노친네는 그래 밥도 못 얻어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 동네에서 말입니다, 저 건너, 지금처럼 이렇게 촘촘히 있지 않죠. 저 건너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거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두 부부 거지가 요새는 밥을 얻으러 오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벌어진 거죠. "야! 그럼 노인네가 죽었나 봐. 밥을 얻으러 오지 않잖아?" 이런 자비스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그런 자비스런 생각이 안 들어갔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는 그 동네 노인네들과 젊은이들이 그 움막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쓰고서는 달달 떨면서 그냥 병이 든 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시죠? 허허허. 그래서 동네서 그냥 전부 나서서 어느 집 바깥채에다가 그 두 내외를 들게 하고는 뜨뜻하게 불 때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깨끗이 입히고, 그래 가지곤 노인네들끼리 봉양을 하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봉양을 하게끔, 자식이 없는 노인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두느냐 그러면서 잘 봉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살도 붙고, 옷도 좋은 것 입고, 목욕도 항상 하고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렇게 그냥 잘 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집도 살펴주고 또 어느 자식 많은 집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보살피거든요.

이 노인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네가 부모를 버리고 도주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옷 시주한 절에 찾아간 겁니다. 그 두 노인네가 찾아가서 스님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스님한테 옷 한 벌 있는 거를 입은 거를 벗어서 시주하고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를 도와줘서 호강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뜨뜻한 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깐 저희 부모 생각이 납니다." 인제 그때서야, 그때서야 생각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땅을 팔아 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불효가 어딨습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스님네들께서 이 옷 한 벌을 시주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저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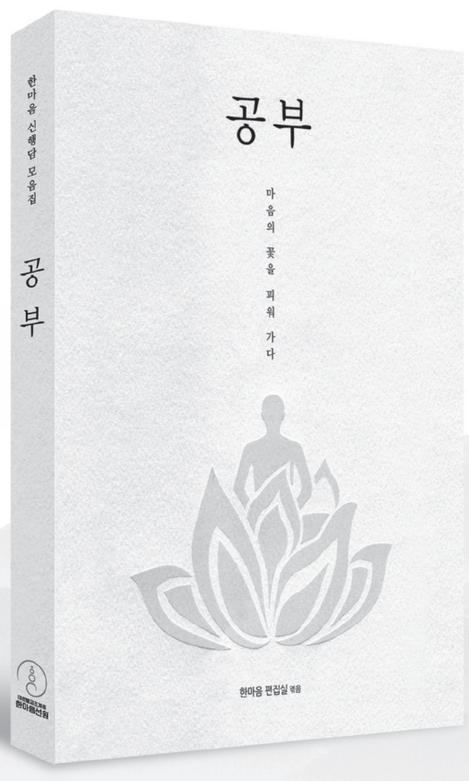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이 얘기를 해요. "자네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계시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아이구,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언제나 사람은 영원한 걸세."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없으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여기 당신들 옷 시주받아 온 그 스님네들일세."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스님네들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버질세. 그 두 분이서 과거에도 자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거를 시주받아다가 위 닦고 아래 닦고 해서 요만큼 남는 것까지도 태워서 자기네들이 먹었다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아, 거기서 그 스님네들한테 그냥 폭 고꾸라져서 그냥 손을 쥐고 벌벌벌벌 떨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 버렸어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요. 그랬으니 글쎄, 그 부모 손에 또 간 거야, 그냥. 그 어루만지면서 다 씻겨서 또 그렇게 해서는 승천했어요.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떠안은 거죠. 의식은 자기한테다 넣고 그 무명만 치운 거죠. 그랬으니 자식들은 산 거죠, 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립니다. 자기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날더러 어떤 분은, 경을 달달 외우신 분들은 부처님의 경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죠. 그러나 본래 체계 없는 게 진리기 때문에 또 질서 정연하게 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변천해 돌아가니까 우리는 마음의 인등을 켜고 앞장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늦는다는 거를.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 타려고 아무리 기다리고 서 있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목마르면 물 먹어라 이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거기 입력만 해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고는 '관(觀)하라!' 이런 거는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지켜봐라! 지켜보면 그것이 바깥으로, 입력됐던 거니까 바깥으로 탁, 팩스에서 나오듯이 탁, 탁 나오거든요. 그런 게 실험과 체험이죠.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